

# 보육시설에서의 유아교육의 과제

- 독일의 교육개혁논의와 유아교육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서 정 만\*

목 차	
I. 들어가면서	5. 보육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과제
1. 독일의 현안 교육 논쟁	6. 독일 바이에른 주(州)의 사례
2. 보육 및 유아 교육 개혁에 관한 논리와 배경	II. 마치면서
3. 비상황적 교육 이론과 상황 중심 교육 이론	III. 참고 도서 및 문헌 Literatur
4. 보육 및 유아 교육에서의 상호 구성주의 교육개념	

## I. 들어가면서

대체로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연령이 4세 미만이면 어린이집에, 자녀의 연령이 4세 이상이면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한국에서 어린이집은 보육 위주로, 유치원은 교육 위주로 운영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 음악을 들려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아이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이다. 하물며 태어난 아이에게 보육은 단순히 탁아의 의미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아 보호해주는 협의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보육'의 의미는 결국 '교육'을 포함하는 의미로서 보육과 교육은 유아기에 필수적이며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독일을 세계 빅3 강국으로 이끌었던 독일의 교육제도가 지금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볼 때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것이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 교육사회학

에서 입증되었다. 독일 학생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학업 성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PISA 보고서나 다른 연구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초·중학교 학생들은 독해력, 수리력, 자연과학 능력에서 다른 북유럽 국가보다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90년대 말부터 독일에서는 보육 시설의 교육적 기능이 논의의 테마가 되고 있다. 주로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비롯된 이러한 논의는 유아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의 수준, 교육의 질 그리고 교육 환경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정치·교육·경제계에서는 보육 시설을 교육 기관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며, 보육시설에서 보충적으로 이주자 자녀를 위한 독일어 프로그램, 수리력, 자연과학 능력, 독해력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육적 난관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이라 함은 독일어로 Bildung이라 하며, 보육은 Erziehung이라 한다. 그래서 학교 교사는 Lehrer/Lehrerin 이라 하여, 지식전달자의 의미가 강하며 6세이하의 보육 및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Erzieher/Erzieherin 이라 하여 유아의 잠재력을 꺼내어 개발해 주는 사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보통 유치원을 포함하는 보육 시설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보육과 교육의 통합적 의미로 '보육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이라 칭하여 논하기로 한다.

보통 독일의 보육 시설을 Tageseinrichtung 또는 Tagesstaette 라고 하며 그 안에 보통 0~3세 영아를 위한 Kinderkrippe, 3~6세를 위한 Kindergarten, 6~14세를 Kiderhort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Kinderkrippe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를 둔 생후 6개월부터 3살까지의 유아를 돌보아 주는 종일반 보육시설이며, Kindergaerten은 3~6세의 유아를 돌봐주는 보육기관이다. Kindergaerten의 명칭은 유치원의 창시자인 프뢰벨이 "어린이의 정원"이라고 명명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곳에서는 가정교육을 지원하면서 사회교육과 영재교육에도 비중을 둔다. 대화를 중요시하며 여러 가지 교육 도구를 제공한다. 유아는 제공된 교육 도구를 가지고 쌓고 만드는 연습을 통해 집중력과 활동력을 기르고, 리듬교육, 음악교육, 체조 등을 통해 공간 지각을 획득한다. 운영 형태는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공공 유치원, 직장 유치원, 교회 유치원 등이 있고 보육은 보육교사, 부모, 사회 복지사, 양호교사 등이 담당한다. 또한 Kindergarten과 유사한 Kinderlaeden은 1960년대 말 베를린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유아에게 권위주의적 교육이 아닌 자유교육을 표방한 보육 시설이다. 주로 대학생과 사회소외 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설 보육 시설이다. Kinderlaeden의 교육 목표는 아동의 정신적, 심미적 능력과 창조적 영감의 계발에 두고 있다. Kinderhort는 저학년 아동의 방과 후 시간에 돌보아 주는 보육 보습 시설로서, 여기서는 학교 숙제와 놀이, 취미활동 등을 도와준다.

본고는 보육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식하에 후기산업사회에서 - 더 나아가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인간상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유아 교육의 과제를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보육 시설이 안고 있는 교육 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또한, 독일 바이에른 주(州)에서 논의되어 실행 단계에 있는

6세 이하의 보육 시설 유아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의미를 찾고자 함이 본고의 목적이다.

## 1. 독일의 현안 교육 논쟁

독일 사회법 제8권(SGB VIII) 22조에는 6세 이하의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 시설의 중심 과제를 영·유아의 탁아, 교육 그리고 보육이라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탁아와 보육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정책자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져 왔지만, 보육시설의 교육 과제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다.

독일에서의 현안 교육논쟁 중 보육시설의 교육과제는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대표적인 기폭제는 델파이 보고서(1998), 연방 교육포럼(1999), PISA 2000 보고서(2000), 그리고 본격적인 보육 및 유아 교육에 관한 OECD국가의 비교 연구 보고서(2001)이다.

델파이 보고서<sup>1)</sup>에서는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일반지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기초 지식에서는 지식의 연계능력, 개인적·사회적 능력 그리고 학습 방법에 대한 능력을 제시하였다<sup>2)</sup>. 또한 이 보고서는 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목표로서 자기학습, 자기의식, 자기경영, 개인 간의 교류,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 개방적인 활용과 이에 대한 교육능력, 개인의 기본적인 표현능력 그리고 외국어능력 및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속하는 문화기술 등의 능력향상을 위한 기초능력 신장의 교육을 제안하였다.

국제 학생 수학 능력을 평가한 PISA 2000 보고서<sup>3)</sup>는 독일 국민에게 대단한 충격이었다. 이 보고서는 특히 15세 학생들의 독해력<sup>4)</sup>이 겨우 평균 수준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취학 전 아동의 독해력 촉진 프로그램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sup>5)</sup>. 특

1) 독일의 델파이보고서를 살펴보면 선진국들의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력 양성의 추진방향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해 알아야 할 지식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상황에서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관련 영역에 관한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하고 향상시켜 나아가기 위하여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2020년경에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직업능력을, 다국 문화 이해 능력(inter-cultural skills), 심리·사회적(대인관계) 능력(psychological skills), 외국어 능력(foreign language skills), 기술적·방법론적 학습 능력(technological and methodological skills), 매체 활용 능력(media competence), 특정 부문과 관련된 능력(specific subject-related skills), 기타 능력(other types of skills) 등으로 제시되었다.

2) Bundesministerium fuer Bildung und Forschung (1998). Delphi-Befragung 1996 / 1998, Abschlussbericht zum Bildungs-Delphi. Muenchen

3) Deutsches PISA-Kosortium (2002). PISA 2000 - Die Laend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m Vergleich. Opladen : Leske+Budrich.

4) PISA연구조사에서는 Literacy를 독해능력(Reading Literacy), 수리능력(Mathematical Literacy) 그리고 자연과학 이해능력(Scientific Literacy)의 분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나, 독일어로 Literaritaet로 주로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한다.

5) 학생들의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부모나 보육시설을 통해 준비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독일 보육시설에서는 초등학교 교육을 위한 예비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히 독서를 일상화하지 않는 가정, 자녀에게 무관심한 가정, 이주 가정의 자녀에게 독해력 프로그램이 우선 장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6)</sup>

교육포럼(Forum Bildung)<sup>7)</sup>에서는 2년간의 연구결과로 교육개혁의 기본과제로서 12개 항목<sup>8)</sup>을 제시했다. 먼저, 유아기 성장에 있어서 조기 교육의 의미와 개별 아동 학습을 조기에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즉, 조기 교육 장려를 위해서 보육시설에 교육 과제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가능성 모색과 개별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의 질에 관한 논의<sup>9)</sup>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교육 서비스와 보육 시설이 안고 있는 교육적 과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2001년 OECD국가 중 12개국을 대상으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Starting Strong"<sup>10)</sup>에서는 지금 독일에서 논의 중인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안에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제기<sup>11)</sup>하였다. 이 연구에 독일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 통제의 취약점이 간접적으로 노출되었다.

"Starting Strong"에서 독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아동교육 및 보육의 질과 균형적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8개항의 주요 과제에 잘 나타나 있다.

- 6) 상계서 134쪽 이하 참조, 2001년도 봄에 실시한 '도서능력 장학재단' 조사에 의하면 독일가정의 25%정도만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10년 전에는 절반 이상의 부모가 아이의 읽기 지도는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했었다.
- 7) 현재 독일의 전역으로 조직되어 교육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세션은 ① 아동교육 규제와 규제 완화를 위한 보육기관 시스템의 새로운 규정 ② 교육의 질과 계획과 평가를 위한 공개적 전문적 논의 ③ 보육 시스템의 질적 확보와 평가를 위해 경영학적 동기 이론 적용에 대한 비판적 가치 인정 ④ 유럽 통합 국가에 합당한 보육교사 교육과 적용에 관한 새로운 방안 ⑤ 6세 이하 아동 교육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논의 등이 있다.
- 8) ① 조기교육촉진 ② 개인적 조장 ③ 평생학습 ④ 책임감 있는 학습 ⑤ 학습자가 교육개혁의 열쇠 ⑥ 남녀동등의 기회 원칙으로서 동등한 참여 ⑦ 미래지향적 능력 배양: 확실한 전문 지식과 광범위한 능력 ⑧ 새로운 미디어의 기회 사용 ⑨ 주변화(낙오자)의 예방과 차단 ⑩ 이주자 외국인 교육과 능력배양 ⑪ 학습 장소의 개방과 연계 ⑫ 교육기관의 책임감과 평가를 통한 학습
- 9) 1998년 12월 3일 Koenigwinter에서 보육시설에서의 교육의 질에 관한 문제 제기과 다시 2002년 10월 22/23일 베를린에서 "보육시설이 흔들린다"는 제하에 심포지움에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을 집중 논의
- 10) 연구 참가국은 호주,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미국 등 12개국이다. 연구가들이 해당국가에 2주씩 체류하여 조사한 결과와 해당국가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2001년 스톡홀름에서 종합보고서 "Starting Strong"를 발표하였다. 평가항목 ① 모든 아동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시스템의 확장여부 ② 교육의 질 향상노력여부 ③ 보육기관과 교육전문자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여부 ④ 재정확보여부 ⑤ 보육전문가의 근무조건과 자격여부 ⑥ 교육적인 보육활동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여부 ⑦ 부모, 가족, 공동체의 참여여부 등 7가지였다.
- 11) OECD (2001). Starting Stro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11

항목	주요 과제 내용
제1항	아동교육 및 보육정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국가와 지방자치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립
제2항	교육제도에서 보육과의 밀접하고 동등한 협력관계 구축
제3항	특수아동들의 상황을 고려한 모든 아동에게 기회를 주고 참여시키는 방안
제4항	보육시설과 이에 관련 인프라에 실질적 공공재원의 지원
제5항	교육의 질 향상과 질 확보의 관점에서 참여 지향
제6항	모든 아동교육 및 보육 종사자의 적합한 자격과 근무조건
제7항	교육평가와 자료수집의 체계적인 방안
제8항	장기적 연구 및 평가프로그램과 안정적 연구구조

핵심적인 취약점은 보육시설에서의 전체적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활동의 결여라는 것이다. 조사 대상국 중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이미 평가도 하는 국가가 있는데 독일은 이제 논쟁의 출발점에 서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이에른 주에서는 1999년에 이미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PISA 연구결과에 선행하여 실행하였다.

## 2. 보육 및 유아 교육 개혁에 관한 논리와 배경

영·유아를 위한 보육 프로그램의 개혁 당위성은 다음과 같은 배경 논리로 제시할 수 있다.

### 가. 사회적 배경 논리

교육을 근대 산업사회에 적합한 교육서비스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탈 근대화(post-modernism) 사회에 적합한 교육제공에 교육 목표를 두느냐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교육 목표에 따라 유아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계몽시대 이후 세계관은 근대화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통해 형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발전, 확실성과 보편성, 객관적 연구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리의 발견 등을 핵심 전제로 하고 있었으나 실제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지금의 후기 산업 사회는 불확실성, 복잡성, 다양성, 다면적 전망 그리고 시간적·공간적·상황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사회이다<sup>12)</sup>. 이러한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은 교육적 이론과 실천에서 새로운 이해와 의미구성의 새로운 시각을 눈뜨게 했다.

12) Dahlberg, G. (2002). Kinder und Paedagogen und Co-Konstrukteure von Wissen und Kultur. Fruehpaedagogik in postmoderner Perspektive. In : Fthenakis, W. (2002). Fruehpadagogik International. Bildungsqualitaet im Blickpunkt. Opladen : Leske+Budrich

### 나. 국가적 배경 논리

지금까지 실행해 온 독일의 교육과정은 국가의 철학과 요구에 부응하여 모국어와 민족의 우수성을 더 강조하고, 다국어와 다문화적 능력을 경시하여 왔다는 지적이다.

### 다. 경제적 배경 논리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필요한 새로운 능력을 길러 줄 변화된 교육 제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직장 구조 변화와 직장체계의 진행·발전은 업무내용과 능력요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예로 낮은 업무 능력을 가진 자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탈락하기 때문에, 자립적 직업 확보를 위한 평생 학습,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전업을 위한 학습을 요구받기도 한다. 또 까다로운 업무 과제들은 고도의 집중력, 복합적 인과관계에서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다면적인 상황 파악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된 업무와 탈집중화 조직은 전문적인 업무기술을 넘어서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한 팀워크를 요구한다. 이는 경제 활동에서 필요한 사회적 능력이 점점 독창성, 학습자세, 책임감,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 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의 획득을 위해 자기인식과 자기평가, 자기 조절 능력과 자아실현의 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의 이러한 경제 변화에서 경제성장은 개인 능력 배양과 함께 교육제도에 달려있다. 이것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의 주도 능력과 학습자세, 그리고 책임을 감수하는 것 등이 요구되는 것이고, 교육제도에서도 단지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아들에게 지금까지 충분히 준비시키지 못한 학습능력과 다른 복합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라. 상황적 논리

지금까지의 교육내용은 환경적 상황의 위기와 변화에 둔감했다는 지적이다. 상황적 논리의 근거로는 유아의 삶 조건의 상황적 변화, 지역 간의 빈번한 이동성, 문화적 분화, 빈부 격차 그리고 학력 격차와 학업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든다. 즉, 지금까지의 교육내용은 아동의 인종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배려도 적었고, 빈곤이나 사회적 격차 그리고 유동성 등에 대해서도 거의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PISA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낙오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마. 가족 구조의 변화 논리

기형적으로 진행되는 가족 발달 과정은 유아에게 있어 가족의 구조적·질적인 변화로부터 가족과 교육정책 그리고 자신을 위한 도전이 되고 있다. 가족 구조와 가족관계의 급속한 변화 - 이혼, 결손가족의 증가 추세는 피해자인 해당 유아들에게 가족 해체와 결손으로 인한 좌절과 발달부진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 바. 교육 제도의 변화 논리

이 논리는 국가의 발전과 국제적 전망 그리고 교육관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sup>13)</sup>등에서 추진하는 보육 및 유아교육시설의 교육개혁이 독일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결론에 기초하고 있다.

## 3. 비상황적 교육 이론과 상황 중심 교육 이론

교육의 구성과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유아 교육계 변화의 이해<sup>14)</sup>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독일 교육내용은 세계관을 재질문하는 데에 적합하였다. 이것은 세상은 이미 구성되어있고 시간적 흐름에서 법칙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 이것은 경험학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중립적 보편적 성격의 지식을 재획득하는 성과가 있었다. 개인은 독자적이고 매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개인의 발달은 시간이 지나 성숙하면서 자율적이고 합리성을 띠고 이성에 합치하는 개성이 된다. 여기서 학습은 상황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개인적 과정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저절로 배운다는 전제하에 모든 아동들을 위한 통일적인 교육내용을 찬성하는 것이다. 문화적이나 인종적 다양성은 고려되지 않고 상황적인 전망은 주제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비상황적 교육관이 현재에도 독일 교육계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 셰퍼(Schaefer)<sup>15)</sup>는 역사적·사회적 상황과 무관하게 교육내용을 채우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근거로서 그는 구성주의적 전통이 피아제의 영향에 기인하는 발달 심리학적 논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았다. 셰퍼의 테제는 “유아교육은 일차적으로 스스로의 교육이다”<sup>16)</sup>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주요 발달심리학의 논리인 유아의 모든 지식은 유아의 인지적 능력의 정도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되짚어 볼 문제는 지식과 교양은 유아에게는 직접적으로 전수될 수 없고 일정 수준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교육현실의 사회적 과정이 경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의 주요한 교육학적 결론은 “성인들은 유아들의 세계와 환경에서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유아들이 독자적인 가능성과 지속적으로 생산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17)</sup>는 것이다. 또한 메이얼(Mayall)은 구성주의적 교육개념은 유아의 개성에 초점을 맞추는 범위로 제한할 것과 유아의 보편적·비상황적인 교육내용에 주력해야 한다

13) Pramling-Samuelson, I. (2002). Demokratie -Grundlage und Leitziel des vorschulischen Bildungsplanes in Schweden. In : Fthenakis, W. (2002). Fruehpadagogik International. Bildungsqualitaet im Blickpunkt. Opladen : Leske+Budrich

14) Dahlberg, G., Moss, P., Pence, A. (1999). Beyond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Postmodern perspectives on the Problem with Quality. London. Palmer Press.

15) Schaefer, G. (2001). Fruehkindliche Bildung. Klein und Gross, Heft 9, p.6.

16) 상계서, p.7.

17) 상계서, p.11.

고 주장하였다.<sup>18)</sup>

반면에 이미 언급한 달베르크의 후기 산업 사회 전망에서 교육관의 의미를 찾는다면, 우리는 유아가 고도로 다양화 된 문화와 복잡한 세상에서 교육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서게 된다. 다윈주의는 우리 존재의 구성적 요소로 볼 수 있다. 복잡성, 다양성, 불확실성, 다면성, 주관적 개성 등은 지금 세계의 진정한 사회성격으로 규정이 되었다. 이제는 보편적 법칙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가 기대하고 발견한 객관적 지식 속에는 점점 더 의문이 제기된다. 저마다 다른 전망과 시·공간적 특이성은 현 사회의 특징이 되었다. 오히려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학습의 풍부한 자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학습은 사회적 과정이며, 이러한 학습과정을 구성하는데 아동 자신과 보육 및 유아 교육 전문가 그리고 부모가 관여하게 된다. 학습은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계가 없는 학습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프로그램은 유아들의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배경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문화적으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사회에서 학습과정은 고도의 사회통합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목표 설정 능력과 위기와 좌절과 같은 단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과제를 갖게 한다. 보육 및 유아 교육과정은 이러한 특별한 가능성과 능력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의 맥락에서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관점의 시도는 세계적인 추세로 기초분야에서는 발달심리학과 학습심리학, 다른 한편으로는 응용분야에서 교수-학습개념과 교수심리학을 핵심으로 하는, 이듬하여 '사회 구성주의적 교육개념'의 수용을 제시한다.<sup>19)</sup> 사회구성주의에서는 유아가 출생으로부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음에 주시하고 있다. 학습과 지식형성은 상호교류와 상호구성적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본다.

상호구성의 고전적인 예는 제롬 부르너<sup>20)</sup>의 발달심리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유아들이 언어 발달 단계에서 어떻게 엄마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배우고 그림책을 보는가를 연구하였다. 엄마가 아이의 표현을 이해하는 상호 작용적, 상호 구성적 연관이 없이 그림책을 읽어준다는 것은 아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태어나서부터 아이와 어른과의 상호 작용 과정이 중심 논의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함께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유아 발달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상호 작용 과정을 형성하는 교육적 지도의 방향이 문제이다. 유아발달은 당연히 아동에게서 스스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사회적인 세상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어 진행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아 교육은 필히 발전적이고 능력을 촉진시키는 상호 작용 형성을 목표에 포함해야 하고 오늘날 보육 및 유아교육프로그램에서 자기 스스로 능력을 형성하는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연구에서는 유아 발달과 학습 상황은 유아

18) Mayall, B. (1994). The sociology of childhood : children's autonomy and participation rights. In : A.B. Smith, M.Gollop, K. Marshall & K. Nairn (2000). Advocating for children. Otago University press. pp.126~140.

19) Palincsar, A.S. (1998). Social constructivist perspectives on teaching and learn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pp.345-375.

20) Bruner, J. (1987). Wie das Kind sprechen lernt. Goettingen : Huber

의 발달 단계가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과 유아 교육에서는 단편적·개별적인 지식 요소의 전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sup>21)</sup> 또한 유아는 의미의 재구성에서 역동적이고 상호 심리 내적행동이라고 본다.<sup>22)</sup> 이러한 견해는 세계적인 추세로 교육개념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에서 논하기로 한다.

#### 4. 보육 및 유아 교육에서의 상호 구성주의 교육개념

##### 가. 상호 구성주의 교육개념 도입

지금까지 독일의 유아교육과정에서는 유아를 약하고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발달되지 않고, 아직 독립적이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불쌍한 아이라는 시각이었다.<sup>23)</sup> 그러나 유아와 보육교사는 지식과 문화의 실제적 상호구성자로서 권리·의무 그리고 가능성을 가진 주체로써 이해해야 한다. 유아가 지식과 문화의 실제적 '상호 구성자'라는 생각은 아이를 존귀하게 대하는 자세에 근거를 둔다. 즉, 유아는 호기심 많고 용기가 있으며, 자발적으로 배우며 탐구하며 다른 사람과의 능동적인 교제를 통해 발달하려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것은 현대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학습을 스스로 습득해 가는, 역량 있는 모범적 유아의 모습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습은 상호 협력과 의사소통의 행위로 이해하며, 동시에 유아와 함께 다른 지식을 연계하여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는 의미를 뜻한다. 여기에서 유아는 비어있던 항아리에서 서서히 지식이 채워지는 항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유아는 능동적이고 역량이 있게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가지고 다각도에서 경청하고, 실험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인격체가 되는 것이다.

달베르크는 유아의 모습은 지식과 문화의 상호 구성자로서 보육교사와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관계 형성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이러한 관계 형성은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 그리고 보육교사와 유아가 교수-학습과정에서 서로에게 반응적이고 질문하는 태도로 형성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계 형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시민의 태도를 이해하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전제된다. 여기서는 자유와 해방은 우리가 스스로를 상호구성자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과 대화로서 우리의 모습을 설계할 수 있는 한 우리 스스로가 교육되어지는데 기여한다"<sup>24)</sup>고 본다.

이러한 방법의 전개는 교육내용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가 교육과정의 주요주제가 되어 있는 스웨덴의 유아 교육 프로그램 예에서 볼 수 있다. 스웨덴 교육안의 학습개념에서 규

21) Carr, M. (1998). Project for assessing children's experiences : Final report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Part Two : Five case studies.

22) McNaughton, S. (1996). Commentary : Co-constructing curricula : A comment on two curricula (Te Whaeriki and the English Curriculum) and their developmental bases. New Zealand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1(2), p.191.

23) Dahlberg, G. (2002). 상계서 참조

24) Dahlberg, G. & Lenz-Taguchi, H. (1994). Preschool and school-Two different traditions and vision of a meeting place. Stockholm, Sweden : HLS foerlag.

정된 가치와 규범들을 살펴보면, 명확하게 아이의 참여와 결정에 가치를 두고 그리고 학부모와 보육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sup>25)</sup>

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교육과정에 도입한 예로서, 뉴질랜드에서 90년대 초부터 개발한 “Te Whaeriki”(짠 뜻자리의 의미)라고 명명한 신 교육과정이다. 이 신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구성에서 문화·언어적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한 좋은 예<sup>26)</sup>가 되었다. 이 신 교육과정에서는 원주민 마오리족과 백인 이주민과의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에서 가치를 찾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신 교육개념의 우수한 사례가 된다. 마오리족과의 존경에 찬 상호교제를 통해 인종차별적 발상의 싹을 없애고 상호 문화적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sup>27)</sup> 이 교과과정은 사회문화적으로 매개된 학습, 유아와 다른 사람, 장소 그리고 사물과의 상호관계의 역할을 강조한다. 유아들은 친구나 어른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사회화를 배우고, 참여 활동과 개인적인 탐구와 반응을 통해서 사회적 적응을 배운다.

차별성은 교육제도를 통해서 제거되지 않고 이것은 오히려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풍부한 학습자원으로 반응된다는 사실이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에 관련한 논문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맥노턴(McNaughton)<sup>28)</sup>은 그의 저서 “Rethinking Gende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에서 양성의 차이가 강조되고 제거되지 않는 한, 남아와 여아의 보육 및 아동 교육 내용은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Gurian은 저서 “Boys and Girls learn differently”에서 맥노턴(McNaughton)과 비슷한 관점에서 성별차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sup>29)</sup>. 독일에서는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연구로 로어만(Rohrmann)과 토마(Thoma)의 연구<sup>30)</sup>가 있는데, 성별 차이에 따른 교육의 기준적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배경을 통해, 교과과정 구성에서 문화적이고 긍정적인 남아, 여아의 차이가 반영되어 교육프로그램에서 긍정적이고 본질적인 특징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유아 교육에 있어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노력은 독일에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을 전제로 하여 교육을 사회과정으로 규정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아이의 모습을 교육목표로 한다면, 유아의 학습 환경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아이의 문화적·사회적·인종적 배경을 반영하고 상황적 요소를 배려한 고도의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문화의

25) Pramling-Samuels, I. (2002). 상계서, 본고 <표 1> 참조

26) <http://www.verwaltung.steiermark.at/cms/dokumente/10006024/61e5706e/Neuseeland1.ppt> 참조.

27) Ritchie, J. (1996). The bi-cultural imperative within the New Zealand draft curriculum guidelin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Te Whaeriki”. Austral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21(3), pp.28~32.

28) McNaughton, S. (2002). Geschlechtsrolle neu denken in fruehepaedagogischen Institutionen. In : Fthenakis, W. E. & Oberhuemer, P. (Hrsg.)(2002). 상계서.

29) Gurian, M., Henlay, P. & Trueman, T. (2001). Boys and Girls learn Differently! : A Guide for Teachers and Parents. New Jersey.

30) Rohrmann, T. & Thoma, P. (1998). Jungen in Kindertagesaetten - Ein Handbuch gek geschlechtbezogenen Paedagogik. Freiburg.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독일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PISA보고서에 서도 독일교육제도가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회적 낙오자를 양산하고, 독일 아동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이 높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나. 국가별 보육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 사례**

국가별 보육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명	보육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 내용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아동 및 가족부<sup>31)</sup>에서 입안되어 보육시설에서 교육활동을 규정.</li> <li>• 내용 구성 : 일반적 개념정의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육시설의 의미와 가치, 목표, 지향하는 가치 등을 설명하고, 프로그램의 중심적인 내용과 전망을 규정, 이 기본계획의 수행을 위한 기본조건 등을 설명.</li> <li>• 평가 : 보육시설에서의 구체적인 교수-학습활동과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창조적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았다.</li> </ul>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년 국가 차원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Te Whaeriki)을 실행.</li> <li>• 내용 구성 : 주로 다문화적 내용을 다루었는데, 뉴질랜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마오리족과 백인 이주민과의 전통적 문화의 가치를 모두 인정하는 커리큘럼 구성을 시도하였다. 이 커리큘럼은 능력고취<sup>1)</sup>, 전인발달, 가족과 사회, 교육이라는 기본전제 위에서 구성되었다. 그리고 5가지 차원의 건강, 소속, 참여, 대화, 탐구의 항목으로 발전했다.<sup>32)</sup></li> <li>• 평가 : 커리큘럼 구성 뿐 만 아니라 실행과 평가면에서도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li> </ul>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년에 정부 교육연구부에서 1세에서 6세까지의 유아의 보육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을 제정.</li> <li>• 내용 구성 : 프로그램 목표를 5차원으로 구성하였다. 규범과 가치, 발달과 학습, 아동과 보육기관 그리고 부모와의 감화, 보육시설과 초등학교와의 협력 그리고 방과 후 보습소(Hort)와의 협력이다. 커리큘럼은 민주주의 원칙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li> <li>• 평가 :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보육 교사의 자격을 대학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에 정부의 교육노동부에 의해 제정.</li> <li>• 내용 구성 : 스웨덴의 경우와 비슷하게 유아의 학습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내용을 6가지 차원으로 구성했다. ①개성적, 사회적, 감성적 발달 ②의사소통, 언어, 독해력 향상(Literacy) ③수리기초교육 ④환경지식과 이해 ⑤육체적 발달 ⑥창조적 발달</li> </ul>

31) Q-0917E(1996). Framework Plan for Day Care Institutions. A brief presentation. 1996, 노르웨이정부 아동가족부 홈페이지http://odin.dep.no 참조

32) Te Whāriki, He Whāriki Mātauranga mō ngā Mokopuna o Aotearoa, Early Childhood Curriculum.

## 5. 보육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과제

이제까지 독일 보육 및 유아교육 상황은 보육시설에서 모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재정과 행정규정에 관련하여 엄격한 규제를, 다른 한편에서는 보육 및 유아교육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거의 방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부모들은 자식의 보육과 교육의 질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개별적인 보육시설에 기대하고 위탁하고 있었다. 즉, 개별적인 보육시설에 많은 자율권과 신뢰를 주어 왔던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학교교과과정을 따르지 않고 개별적인 보육교사의 성향과 창의력의 성장 가능성을 더 많이 확장해 주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시행하는 교육제도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방향이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98년 모든 국립 보육시설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과시킨 스웨덴을 필두로,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에서도 보인다. 이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서 자율화 방향과 함께 강한 규제 방향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독일에서도 보육에 관한 한, 보육 및 유아교육 교사의 자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육의 질에 관한 통제와 평가에 관한 부분은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그러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앞으로 어떠한 교육관을 기초로 해서 아이들의 보육 및 유아교육 내용을 구성할 것이며, 연방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단계까지 이러한 합의를 국가 차원에서 도출하여 이행하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PISA 보고서는 독일 교육프로그램 차원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이미 유아교육문제를 쟁점의 주축에 올려놓고 있다. 이것을 건설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고 유일한 기회인 것이다. 동시에 세계화 진행 추세와 더불어 유리하게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교육은 국제적인 추세와 유리(遊離)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관련성은 지식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명백한 계기이다. 지식은 더 나아가서 신체언어(body language)와 감정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지식전수는 학습능력의 획득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목표는 아이들에게 능력을 전수해 주어서, 복잡한 문제 상황을 풀어가고, 자기의 인식을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 지식을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전 생애에서 학습 지향적인 개념을 학습과정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PISA보고서는 앞으로의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한다. 즉, 유아교육은 유아의 발달과 학습이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였다. 두 가지 핵심 교육 과제는 유아발달의 촉진과 능력강화이다. 학습과 기초능력강화의 두 축은 스웨덴 유아교육프로그램의 중심과제<sup>33)</sup>에 속한다. 일상적 삶의 극복을 위한 기초능력은 발달목표와 학습목표의 긴밀한 연관에 서있다. 이러한 기초능력

33) <표 1> 스웨덴 보육시설에서 보육과제 참조.

에는 협동심, 책임감, 자발성, 유연성, 통찰력, 진취적 행동,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자세, 창의성 및 배움을 학습하는 능력 등이 있다. 더 나아가서 문화, 자연과학, 읽기, 쓰기, 수학 등과 관련하여 의미구성능력 향상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34)</sup>

독일에서 전통적으로 실시해 온 놀이위주의 보육과정에서, 보육내용의 개선과 교육과정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새로운 교과과정에서 놀이와 학습을 밀접하게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서 놀이와 창의적 활동이 오히려 경시되고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독일 교육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크다. 이러한 교육에 관한 테마를 보육시설에 끌어들이 토론을 활성화하고 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PISA보고서에서 간접적으로 언급이 되었고, 교육제도의 국제적 비교가 이를 증명하였고, 독일 보육 및 아동교육은 현저한 결손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지적 부분에서 아동을 발달에 맞게 촉진시키지 못한 유아교육의 결손을 말한다. 독해력(Literacy)같은 영역에서도 지금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은 분야로 남아있어 거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기대된다.<sup>35)</sup> 그 밖의 과제로는 수리·이해력의 중점적 장려, 자연과학적 지식,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적 감수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대화와 의사소통은 교육과 변화의 필수적 요소이다

## 6. 독일 바이에른 주(州)의 사례

독일 바이에른 주는 이러한 세계적인 경향을 주시하고 독일연방 주 가운데 맨 먼저 이 문제에 접근하였다. 주정부 노동부·사회 보장부·여성 및 청소년부 산하 국립 유아 교육 연구소(IFP, Staatsinstitut fuer Fruehpaedagogik)에서는 이미 1999년부터 연방 교육연구부의 지원으로 프로젝트와 유아교육프로그램을 기획·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 연구는 아이의 학습법·학습력 향상과 위기상황에서 아이들의 자기극복과 제어능력 향상에 있다.

### 가. 바이에른 주(州)의 보육 및 유아교육프로그램

특히 바이에른 주정부의 노동부·사회 보장부·여성 및 청소년부 산하 국립 유아 교육 연구소는 6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할 것을 위임받았다. 유아 교육 전문 분과 위원회에서도 함께 공동 작업에 들어갔다. 이 전문 분과 위원회는 공공 사회복지 단체장과 지방자치 단체장을 포함하여 유아교육분야의 전문가, 사회 교육 전문대학장, 방과 후 보습을 담당하는 학교의 장(長), 학부모, 경제 경영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1차 보고서는 2003년 여름에 발표가 되었고, 2003년 가을학

34) Pramling-Samuelsen, I. (2002). 상계서.

35) Whitehead, M. (2002). Unterstuetzung von Sprache und "literacy" in den fruehen Jahren. In : Fthenakis, W. E. & Oberhuemer, P. (Hrsg.) (2002). 상계서.

기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 나. 새로운 아동의 모습

제1부에서는 이 유아 교육 개혁안의 개발 당위성에 대한 논의와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사회여건의 변화와 아동기와 아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관련하여, 아동을 능동적이고 역량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즉, 아동의 모습을 자신의 발달을 개발하고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아동의 모습을 보육 및 유아교육프로그램의 구성에 반영함은, 경제계가 교육제도나 개인 변화에 대해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요구와, 증가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복잡성에서 자라게 되는 아이들 자신의 요구이기도 하다. 또한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의 단절 경험을 겪게 되는 아이들에게, 이 충격을 극복하고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다.

### 다. 유아 교육의 새로운 이해 : 사회 과정으로서의 교육

제1부의 중심적 의미는 6세 이하의 유아 교육이 새롭게 변화된 이해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아이는 원초적으로 개인 중심으로 저절로 배워 간다는 자율 학습관(Selbstbildungsansatz)에서 더 나아가, 아이와 보육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과정으로서의 교육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유아교육을 사회적이고 상호 구성적 과정(social and co-constructive process)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아교육은 교육적 활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일정한 능력에 대한 확보가 전제가 된다. 교육적 활동의 능력이란 구성된 교육 모델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황적 차원(보육교사의 전문화와 급여, 시설 장(長)의 능력, 근무분위기)보다는, 구성적 차원(반(班)의 정원, 교사 1인이 담당해야 할 아동 수)과 진행적 차원(보육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교사들 간의 상호작용, 보육교사와 학부모와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활동 능력과 질을 의미한다.

바이에른 주의 보육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는 민주주의 원칙, 아이와 부모의 참여원칙, 문화적 다양성의 고려, 유아개인차의 고려(각 아이들의 장점과 단점), 포용<sup>36)</sup>, 심리적 저항력 강화<sup>37)</sup>의 환경조성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심리적 저항력(Resilienz) 강화'란 아동 스스로 생리적·심리적·사회 심리적 발달 위협에 대처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심리적 저항능력을 말하는데, 엄습하는 삶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① 아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예, 만성적 빈곤) ② 최악의 스트레스 조건에서도 끊

36) PISA연구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독일 학교제도가 교육과정에서 부적응자를 사회적 낙오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37) Resilienz 심리적 저항력 또는 위기극복능력으로 아동이 스트레스, 변화, 위기, 좌절 등의 심리적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적을 말한다.

임없는 능력발휘 (예, 부모의 이혼) ③ 뜻밖의 상황의 빠른 회복 (예, 부모의 사망, 전쟁)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히 유아교육에서 심리적 저항력(Resilienz) 강화 프로그램은, 유아의 역량을 기르고 건강하게 능력이 있는 성인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능력으로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심리적 저항력(Resilienz) 강화 프로그램의 교육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긍정적인 자기 생각 ② 자아활동의 느낌과 자기통제 가능 ③ 자기 조절 능력 ④ 과도한 자극과 고통의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심적으로 멀리할 수 있는 능력 포함) ⑤ 유쾌한 영향에 보조할 수 있는 능력 ⑥ 질서의식 ⑦ 입체적 사고 능력 (재난상황에서도) ⑧ 결정하고 조직할 수 있는 능력 (자아형성) ⑨ 서로 다른 문화적·사회적 환경을 접하고 서로 다른 역할 기대를 건설적으로 다루는 능력 ⑩ 갈등을 평화적으로 극복하는 능력 ⑪ 책임감 ⑫ 창의성과 탐구심 ⑬ 실질적 참여와 동기유발 등이다.

더 나아가서 이 보육 및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놀이<sup>38)</sup>와 학습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던 바, 놀이와 학습은 동전의 양면임을 수용하면서 놀이로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sup>39)</sup>.

또한 차이(Difference)의 재고(再考)는 유아교육의 중요한 원칙이다. 각기 다른 문화와 접하며 살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야 하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차이의 인정과 남녀 성별에 알맞은 보육 및 유아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적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감 간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균형 감각을 길러 주어야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라. 보육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목표

이러한 배경에서 바이에른 주의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제도적 지향점과 사회·정책적 방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대목표를 설정했다. 즉, 아이와 그의 발달을 교육의 중심과제로 두고 가족, 보육시설과 사회가 함께 지향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과정으로서 상호 구성되어 역량이 있게 자라는 아이가 바로 보육의 지주대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 마. 협의(狹義)의 보육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

보육 및 유아교육프로그램 제2부에서는 협의(狹義)의 교육 개념이 서술되어 있는데, 주로 학습·방법론적 능력이 주제로서 다루어져 있다. 이미 유아기에 있어 '지식사용이 어

38) 놀이는 독일 보육시설에서 중요한 활동과제이다. 독일의 교육사상가인 프리벨은 놀이활동을 통한 교육 강조, 인간의 타고난 자연적 본성은 놀이, 게임, 동식물을 기르고 재배하는 활동을 통하여 개화되어 전체적으로 통일된 조화로운 인간을 형성할 수 있다는 확신하였다. 놀이도구를 Spielgabe(恩物)이라 하여 신이 준 물건이라 하였다.

39) 지금까지 독일 유아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교육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였다. 유아교육 자체가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학문중심교육이 아니고 철저히 놀이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문적인 능력의 발달정도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른 아동들과의 놀이를 통해 사회성, 도덕성의 발달을 제대로 이루고 있는가가 유아교육의 중요한 항목이 되었다.

떻게 사회적 대담이 되는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식을 획득하고 조직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방법을 찾는가'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한다고 본다. 이것은 발달 심리학적, 교수 심리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범위를 제공한다. 또한 제2부에서는 학습과정과 이에 대한 촉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학습과정은 유아의 발달과 특히 유아에게 요구되는 기초능력을 형성하도록 한다. 기초능력의 예를 들자면 자기계획성, 자존심, 자기통제력, 자아실현, 감정의 안정감, 창의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책임감, 협동능력의 강화 등이 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육해 왔던 음악과 운동교육(주로 놀이교육)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소홀해 왔던 부분을 보강한 유아교육을 촉진한다. 예를 들면 ①조기 언어능력강화 ② 자연세계의 이해 ③ 미디어와 신기술 적응능력 ④ 인지적 능력 강화 ⑤시간과 수 개념의 이해부분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언어능력강화 부분에서 독해력 강화를 살펴보겠다. Literacy<sup>40)</sup> (읽고 쓰는 능력)라 함은 읽기자세와 그와 관련된 문화기술 및 능력의 배양, 글쓰기 문화, 이야기 능력과 언어 표현 능력의 향상을 의미한다. 언어 발달은 맨 처음 발성(發聲)한 단어에서 시작하지 않는다고 한다. 단어들은 삶의 과정에서 시간을 거쳐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초에서 형성이 된다. 영아들은 보호자의 시선 접촉뿐만 아니라 입술, 혀, 입의 움직임 까지 관찰을 하여 그러한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삶 전체를 통한 시간·공간을 초월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에 있다. 일찍이 말하기와 생각하는 경험의 의미로서 보호자의 도움과 가족의 일원으로서 혹은 사회단체로서 경험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기들은 내재적으로 언어적 본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다. 그리고 접촉을 좋아하고 놀이를 좋아한다. 영아의 뇌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며 그 후 배우기를 시작한다. 여기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형태는 아이들의 언어획득의 기본이 된다.

유아들은 언어와 그들의 예민한 감정을 발휘하면서 경험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유아들의 언어 발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동을 세심한 부모나 성인들과 함께 그들의 언어와 학습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sup>41)</sup>.

보육교사는 유아들의 풍부한 의사소통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유아들의 말하기를 강조해야 하며 말과 소리로 하는 놀이를 장려하고, 아이들이 자신의 기호로 표현하고, 그리고, 쓰도록 하여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교육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아이들에게 취학 전 오랫동안 읽기와 쓰기에 열심히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교육적 관심에서 볼 때는 취학 전의 유아에게 읽기와 쓰기를 너무

40) Literacy를 굳이 독일어로 옮기면 Literaritaet로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독해능력, 여기서는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은 교과과정의 내용의 습득뿐만 아니라 과정과 개념의 이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41) 유아를 위한 독해력 향상의 기본적인 방법은 ① 어린이와 같이 그림책을 본다. ② 말하고 소리 지르며 논다. ③ 어린이의 일상적 환경에 있는 인쇄물과 텍스트를 사용한다. ④ 스스로(자신의 기호, 표시) 그림을 그리게 한다.

완고하게 강요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유아들에게는 글자를 읽고 쓰는 것에 대한 관심을 눈뜨게 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 바. 보육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 적합한 여건 조성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기본조건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있다. 조직적·구조적 기본 조건으로는 ① 보육시설과 부모간의 새로운 관계설정<sup>42)</sup> ② 시설 장(長)의 경영스타일과 근무분위기 ③ 감독청과의 협력과 이해 ④ 문화적·사회적 기초와 보육시설에서의 활동확장 ⑤ 다른 봉사단체와의 협력 등을 들고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상황적 기본 조건을 보육시설의 교육과정의 촉진을 위한 것으로 다루고 있다.

보육시설의 시스템 규제에 관해서는 보육교사의 전문화<sup>43)</sup>, 평가와 연구지원을 통해 교육서비스의 확립과 지속적 개발을 중앙에서 통제하며, 재정관리, 보육시설에 관한 문제, 운영근무시간, 수업계획의 변경, 보육시설형태의 변경 등은 각 시설기관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다. 이 사항은 각 보육 시설 협력위원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학부모와 보육교사 그리고 위탁기관장 또는 감독관, 감사기구 등으로 구성된 결정기관으로서, 시설 장(長)은 보육 시설 협력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와 보육시설과의 협조, 그리고 부모의 역할 강화가 된다.

또한 이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요소는 보육 및 교육의 질을 평가를 통하여 중앙에서 통제한다는 것이다. 자기평가와 타인에 의한 평가 그리고 상호간의 진술 등을 통하여 평가하기로 되어 있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실행과 평가단계를 거쳐 2005년 하반기부터는 바이에른 주의 6세 이하의 유아보육시설에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 사. 바이에른 주(州)의 보육 및 유아프로그램의 적법성

바이에른 주(州)의 교육프로그램은 아이를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하나의 주체로서 그리고 가족과 사회의 성원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보육시설에서 교육의 강화는 독일의 기존의 수직적 교육조직의 질서에 결정적인 파장을 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 초등학교에서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학교제도나 시설은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발달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맞추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이에른 주(州)의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 안(案)은 제도적으로 조직된, 즉 학교의 교육과정의 결함을 극복하고 비(非)제도권의 가족과 사회 네트워크를 조직한 학습과정<sup>44)</sup>을 포함하고 있

42) 이는 상호 구성주의적 의미에서 학부모를 단순히 고객이 아니라 아동교육의 협력파트너로 간주한다.

43) 연수교육, 지속교육, 재교육 또는 실습을 통한다.

44) <표 2>에서 구체적인 보육시설에서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영국의 유치원 경우를 제시한다.

다. 이것은 다시 가족과 보육기관의 두 학습 영역의 새로운 질서를 규정한다. 이러한 교육 계획은 평생을 함께 하는 교육개념으로 평생교육의 시대적 요구에 대처하는 것이다.

## II. 마치면서

이상과 같이 보육시설이 안고 있는 교육 과제를 최근 독일에서 진행되어 온 일련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산업사회에서 기술 강국을 자랑하던 독일이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다시 말해 독일은 그들의 교육 위기를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아교육의 개선으로 모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상호 구성주의적 교육관의 입장에서 학습을 사회적 과정으로 보고 아동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하여,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독일과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독일 유아 교육에 대한 고찰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 중심과제에 대한 문제이다. 첫째, 어떠한 교육철학과 어떠한 아동의 상(像)을 우리의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의무화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둘째, 어떻게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에서 유아 발달을 고려한 학습과정을 조직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보육시설에서의 교육과제는 아동의 발달촉진과 능력강화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먼저, 새로운 아동의 상(像)으로 아이들은 더 이상 약하고 수동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배움을 구성하는 존재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학습과정을 통하여 유아 자신이 함께 발달하고 형성해 가며, 자신과 타인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학습과정에서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학습과정을 사회과정으로 이해하여 아동과 보육교사 그리고 부모의 협력관계에서 교육의 효과가 있는데 무엇보다 보육시설에서 부모의 역할강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보육시설에서 유아 교육 프로그램 도입의 궁극적인 목표 지향은, 아이들에게 점점 복잡화 되어가는 세상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기초 교육과 사회생활 참여를 위한 기초교육 그리고 경제 발전의 토대로서, 노동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서의 교육을 통해 능력이 있는 아동발달을 지향해야한다.

이러한 보육 기본계획 및 교육목표는 총체적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염두에 두고, 보육 교육정책에서는 지식과 능력을 전달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사회화에 실패한 낙오자 양산을 줄이기 위한 전제조건이 관철되어야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보육시설 교육프로그램 도입과정에서 요구된다. 유아교육의 기회는 출생, 성, 국적 및 사회적·경제적 상태와 관계없이 보장되어야한다. 그리고 유

아에게 기초능력을 습득하게 하여야 한다. 유아교육이 평생학습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교육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 문화의 실현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동기부여를 통해 학습의 즐거움과 능력향상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특히 후기 산업 사회, 지식 기반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능력 배양을 보육시설의 유아교육프로그램에서 실행하여야 한다. 우리도 독일에서 논의된 독해력과 자기극복 능력 프로그램을 좀 더 구체화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육시설에서 유아교육 발전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가) 기존의 유아교육은 대상연령, 기관유형의 다양성, 연구역역의 다양성과 연구방법의 미정립으로 유아교육의 개념이 모호해 지면서 다양한 교육시설이 난립하고 교육의 질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나) 행정적으로 볼 때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원화가 되면서 보육과 교육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다) 보육 시설에 있어서 공교육화 개념이 시급하다. 학교교육은 유아교육에서 출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라) 보육 교사 양성 문제와 그에 따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마) 보육교사 양성체제와 준비 과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바)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교육, 연수, 지속 교육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도출 할 수 있으나,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 아이와 보육교사 그리고 부모가 유아교육을 같이 구성해 가는 방안도 모색해 볼만 하다.

보육시설에서의 유아교육은 평생학습의 기초를 형성할 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조건이다. 적절한 유아교육을 받지 못하여 생기는 교육격차는 사회적 낙오자를 양산하여 사회통합에 저해요소가 되어 결국은 사회적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전 생애를 통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고, 기초교육의 출발로서 보육시설에 적합하면서도 21세기에 걸맞는 유아교육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표 1> 스웨덴 보육기관의 보육과제

스웨덴 보육기관의 보육과제	
①	사회개혁에 적극적 참여하도록 어린이를 깨우친다.
②	자기가치와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강화한다.
③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④	어린이놀이를 권장하고 장려한다.
⑤	어린이에게 미래에 대한 믿음을 준다.
⑥	어린이에게 선택적 행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⑦	자신과 남이 서로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어 가도록 참여의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어린이를 도와준다.
⑧	학습능력과 어린이의 사회적, 감성적, 심리적, 언어적, 다문화적 발달을 도와주고 장려한다.
⑨	창조능력을 개발하고 장려한다.
⑩	어린이를 위해 최선의 안전한 보육을 보장한다.

<표 2> 영국의 유치원 교육사례

Thomas Coran Early Excellence Centre London (런던 토마스 코안 영재유치원)	
중심업무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 보육</li> <li>• 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가족센터</li> <li>• 교육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li> </ul>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보육시설	교육과 육아의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자	생후6개월~5세미만 유아 : 정원 108명(그 중 21명이 특수아동 5명은 저소득층 자녀 (생계보호대상자 가족 자녀))
이용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
휴가 기간 중 보살핌	탁아 : 5세에서 11살, 5%는 특수아를 위한 예비석 준비
아동발달에 적합한 기술사용에 관한 프로젝트(아동과 전문가를 위한)	
10대와 부모	15석은 선도프로젝트로 부모가 자녀 숙제를 돌볼 수 있게 배치
Drop in	주당 5일 오전
일정한 반이나 코스를 참가하는 부모나 전문가 자녀를 위한 탁아 운영	
언어교정서비스	주당 1번
오락실 운영	
유아 마사지	주당1번

매일 도서 대출	
어린이 컴퓨터 클럽	주당1번
이주자를 위한 어학 코스	주당1번
학업 아동을 위한 클럽	매주 저녁시간 : 4번
자녀 이야기 듣기 프로젝트	(부모가 자녀시각에서 자녀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부모를 위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관심분야 모임과 코스제공 : 수공예, 컴퓨터기술, 외국인을 위한 영어, 국제 학부모 모임, 새내기 아빠클럽, 부모토론 클럽 등</li> <li>• 유아교육과정 워크샵 : 주당 1번 (보육교사와 부모가 만나서 아동의 학습과 발달에 대해서 토론하고 실제적으로 교육과정 활동에 참가한다.)</li> <li>• Webster Stratton 프로그램 : 주 1번 (과잉행동아동의 부모에 대한 상담과 훈련)</li> <li>• 특수아동과 부모 지원 모임 : 주 1번 (구제활동)</li> <li>• Outreach 프로그램 : 사회봉사 활동, 보육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 특히 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가정에 중점을 둔다.</li> <li>• Drop in : 자유스런 모임 : 매주5일</li> <li>• 상담시간 : 주 1회</li> <li>• 부모 대표자 모임 :년 6회, 부모와 보육교사들이 모여 보육센터의 지속적 발전에 대해 논의 한다.</li> <li>• 사회 봉사활동 주 1회</li> <li>• 영양급식과 위생 과정</li> <li>• 가족 결속과 커뮤니케이션 강좌 지역프로젝트</li> <li>• 공간사용 협의 모임 : 매주 1회 (부모와 보육센터 과장이 만나서 활동 교실 사용 배분 문제를 협의한다.)</li> <li>• 지역과 학부모 간담회 : 초등학교와 주 2회</li> <li>• 아동 심리상담 : 주 1회</li> <li>• 보육의 개론 세미나</li> <li>• 응급 처치 세미나</li> <li>• 취학 아동의 새내기 부모 모임 주 1회</li> </ul>	
상담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달 1회 : 오전 개방 (국내외 방문자를 위한 정보제공)</li> <li>• 전화 상담 서비스</li> <li>• 년 8일간 전문가 회의 : 지역 관청과 협력 단체와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와 부모의 재교육 코스</li> <li>• 지역 지속교육 프로그램 (년 7일)</li> <li>• 실습 예비보육교사를 위한 기회 제공</li> </ul>

### Ⅲ. 참고도서 및 문헌

- 나 정(2003). 영유아 교육과 보육발전 방안.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 2003-1. 교육인적자원부
- 유희정(2002). 영유아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보육인프라 확충방안 연구. 2002. 연구보고서 220-12.여성개발원
- 교육마당21 (2000). 특집 : 유아교육의 개혁방향과 추진과제. 9월호.
- 교육마당21 (2002).특별기획2 : 인간학습을 위한 구성주의 교육학. 3월호.
- 강인애 (1999). 왜 구성주의인가?, 문음사.
- 최정임 (1998). 구성주의 연구이해. 교육공학연구 제14권 제3호.
- 독일 보육 및 유아교육 홈페이지, [www.familienhandbuch.de](http://www.familienhandbuch.de), [www.ifp-bayern.de](http://www.ifp-bayern.de)
-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Familie und Frauen/  
Staatsinstitut für Frühpädagogik (Hrsg.): Der Bayerische Bildungs- und Erziehungsplan für Kinder in Tageseinrichtungen bis zur Einschulung. Entwurf für die Erprobung. Weinheim : Beltz 2003
- Bruner, J. (1987). Wie das Kind sprechen lernt. Göttingen : Huber.
- Carr, M. (1998). Project for assessing children's experiences : Final report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Part Two : Five case studies.
- Dahlberg, G., Moss, P, Pence, A. (1999). Beyond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Postmodern Perspectives on the Problem with Quality. London : Palmer Press.
- Derman-Sparks, L. (1989). Anti-bias curriculum :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 NAEYC.
- Deutsches PISA\_Konsortium (Hrsg.) (2001). PISA 2000. Basiskompetenzen von Schülern und Schülerinnen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Opladen : Leske + Budrich.
- Fthenakis, W. E. & Oberhuemer, P. (Hrsg.) (2002). Frühpädagogik International. Bildungsqualität im Blickpunkt. Opladen : Leske + Budrich.
- Gisbert, K. : Lernen lernen. Lernmethodische Kompetenzen von Kindern in Tageseinrichtungen fördern. Weinheim, Basel : Beltz 2004
- Griebel, W./ Niesel, R. : Transitionen. Fähigkeit von Kindern in Tageseinrichtungen fördern, Veränderungen erfolgreich zu bewältigen. Weinheim, Basel : Beltz in Druck
- Gurian, M., Henlay, P & Trueman, T. (2001). Boys and Girls learn Differently! : A Guide for Teachers and Parents. Nes Jersey : John Wiley & Sons.

- Klein und Groß, Heft 2.  
Klein und Groß, Heft 9.
- Mayall, B. (1994). The sociology of childhood : Children's autonomy and participation rights. Dunedin : Otago University Press.
- McNaughton, S. (1996). Commentary : Co-constructing curricula : A comment on two curricula (Te Whāriki and the English Curriculum) and their developmental bases. New Zealand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 Pramling-Samuelson, I. (2002). Demokratie : Grundlage und Leitziel des vorschulischen Bildungsplanes in Schweden.
- Ritchie, J. (1996). The bi-cultural imperative within the New Zealand draft curriculum guideline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Te Whāriki ". Austral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21.
- Rohrman, T. & Thoma, P. (1998). Jungen in Kindertagesstätten - Ein Handbuch zur geschlechtbezogenen Pädagogik. Freiburg : Lambertus.
- Schäfer, G. (1995). Bildungsprozesse im Kindesalter. Selbstbildung, Erfahrung und Lernen in der frühen Kindheit. Weinheim : Juventa.
- Ulich, M., Oberhuemer, P. & Soltendieck, M. (2001). Die Welt trifft sich im Kindergarten. Interkulturelle Arbeit und Sprachförderung. Neuwied : Luchterhand.
- Wustmann, C. : Resilienz. Widerstandsfähigkeit von Kindern in Tageseinrichtungen fördern. Weinheim, Basel : Beltz 2004.